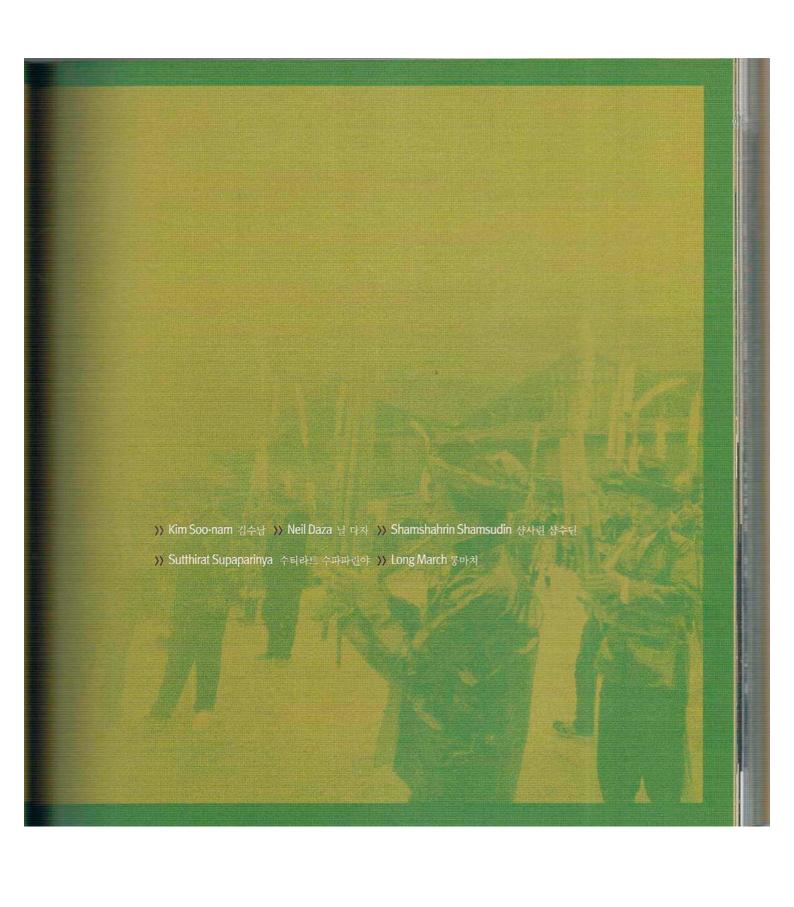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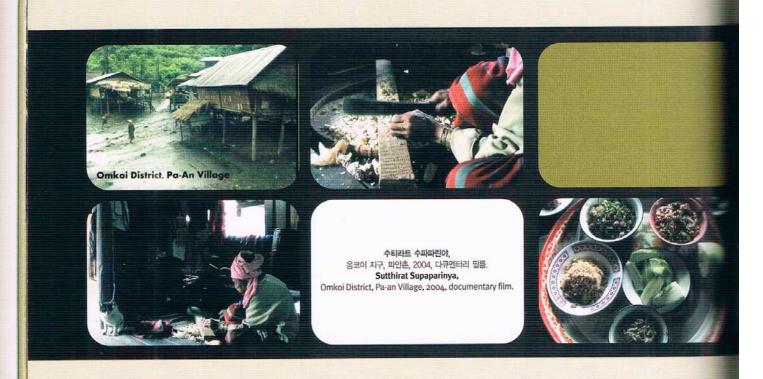
連接 역 전 전 전 1 아시아가만나다 地 黑占



Sutthirat SUPAPARINYA + FIRE + THAILAND | Multimedia Artist

1997년 태국의 치앙마이 대학을 졸업한 수티라트 수파파린이는 독일에서 미디어 아트로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국으로 돌아와 〈치앙마이 사회설치〉와 같은 프 로젝트와 워크샵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2002~2003년 태국의 치앙마이 미술관에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활동하였고, 2004년에는 스위치 미디어 치앙마이(Swich Media Chiang Mai)를 설립하고, 이곳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더 이라와디(The Irrawaddy)-버마와 남아시아 제 역잡자-의 디자인 컨셉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옴코이 지구, 파안촌 (Omkoi District, Pa-an Village)〉 (2004)이란 영상 작업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카렌 (Karen) 부족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며 사는 방식과 이 부족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하버드 대학의 IT 펀드 (Fund for Innovation in Instructional Technology)를 받고 제작한 이 영상기록은 태국의 고산간지대의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Earned a degree from Chiang Mai University, Bangkok in 1997, Sutthirat Supaparinya studied Media Arts in Germany. She has worked for numerous projects and workshops in Thailand Including Chiang Mai Social Installation since she returned to her country. Among her recent projects are video production for the Unit of Social and Environmental Science, Chiang Mai University and design consulting for the *Irrawaddy* magazine which covers purma and Southeast Asia.

She presents *Omkoi District, Pa-An Village* (2004), a film about Karen hill tribes whose popul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documentary will illustrate the life styles of Karen hill tribes both in the jungle and in urban areas, interviews with Karen hill tribes were conducted explaining how much they appreciate their motherland and their own culture. At the same time, they explain how hard they are struggling to live their life in urban areas, namely Chlangmai city. This film aims at increasing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the hill tribes residing in Thailand.

